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7월 미 무역적자 예상외로 크지 않아
- Finance Yahoo: 미 ISM 서비스 지표 6개월 만에 최고치... 예측치 상회
- Bloomberg: 연준, 경제 성장 전망치 두배로 올릴 듯... 경제 지표 호조로
- CNN Business: JCPenney CEO “미 근로 가정, 인플레이션 어려움 겪어”

[미국 금융]

- WSJ: 연방 국세청, 팬데믹 시기 세금 감면에 대한 환급금 지급 연기
- CNBC: 모기지 수요, 27년 만에 최저치

[부동산]

- WSJ: 임대료 상승, 미국 교외 지역에 가장 큰 타격 줘

[오일]

- CNN Business: 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연장, 유가↑

[항공 여행]

- WSJ: 항공권 가을에 특가 할인
- CNBC: 항공사들, 연료비 급등에 대해 경고

[글로벌 경제]

- WSJ: ‘인플레이션 예상 지표로 고용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승진이 퇴사로 이어진다... 새로운 데이터 밝혀
- CNBC: 여성들, 새직장 희망 연봉 6만6천불, 남성은 남성은 9만1천불
- WSJ: AI가 인류에 위협?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 WSJ: Tyson사 이제는 오히려 닭고기 생산 과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ed by Less than Expected in July 7월 미 무역적자 예상외로 크지 않아

- 요약: 자동차와 서비스 수출이 추가 수입 여파를 상쇄했고 미국 여행자들의 지출이 지난 2019년 이래 가장 높게 증가했다.
- 연방 상무부의 오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상품과 서비스 적자가 6월의 수정치 6백37억달러에서 7월에는 6백50억달러로 늘었다. 블룸버그의 예상치였던 6백80억달러 보다는 적자폭이 적은 수치다.
- 전체적으로 수출액은 1.6% 상승, 수입액은 1.7% 늘었다.
- 특히 7월에 산업 공급제품과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는데 반면에서 수입이 증가한 부분은 소비재로서 셀폰, 가구 용품, 자본재 장비가 늘었다.

Bloomberg 기사

Finance Yahoo: US Service Gauge Rises to Six-Month High, Topping All Forecasts**미 ISM 서비스 지표 6개월 만에 최고치... 예측치 상회**

- 8월에 미 서비스 부문의 활동이 6개월만체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규 주문과 고용이 이를 이끌었다.
- ISM의 서비스 지표는 오늘 발표에 따르면 2 포인트 증가가 54.5를 기록했다. 50이 넘는 수치는 확장을 의미한다.
- 이는 소비자 수요와 경제 전반의 지속적인 강세를 의미한다. 가계 지출의 지속적인 상황은 추가 고용을 받쳐줄 뿐만 아니라 미국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기대를 불러일으킨다.
- 구체적으로 부동산, 임대, 숙박, 음식 서비스를 중심으로 13개 서비스 산업이 성장세를 보였다.

FinanceYahoo 기사

Bloomberg: Fed Set to Double Its Economic Growth Forecast After Strong US Data**연준, 경제 성장 전망치 두배로 올릴 듯... 경제 지표 호조로**

- 미 경제가 최근에 호조를 보이고 있어 연준 관리들은 이날 말에 전망치를 발표할 때 올해 성장 전망치를 두배로 올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지출 등의 강세로 미경제 성장률 수치를 올릴수 있으며 아틀란타 연방은행은 3분기 경제성장률은 연율로 5.6%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3개월 전만해도 경제가 정체될 것이라는 전망치에서 반전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준은 내년에 금리 인하 예상치를 축소할 만한 상황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JCPenney CEO: Working families are struggling to get by as inflation bites**JCPenney CEO “미 근로 가정,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 겪고 있어”**

- 미국 근로 가정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JCPenney CEO Marc Rosen이 말했다.
- 그들은 신용 카드 의존도가 더 높아졌고, 청구서를 연체하고 있으며, 비싼 브랜드 대신 저렴한 개인 브랜드를 선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그는 인플레이가 가계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일반 가정에서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2년 전보다 한 달에 약 700불 더 지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IRS Slows Refund Payments for Pandemic-Era Tax Break 연방 국세청, 팬데믹 시기 세금 감면에 대한 환급금 지급 연기

- 연방 국세청은 팬데믹 시대의 프로그램에 따라 결정된 고용주에게 세금 환급금을 지불하는 속도가 늦어지고 있다. 이는 국세청이 직원 고용 유·지 세액 공제에 대한 사기와 과장된 청구건에 대해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과장된 청구 건수를 통제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을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 또한 연방 국세청은 이미 지급한 환급금 일부를 환수하려고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수년간 분쟁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WSJ 기사

CNBC: Mortgage demand drops to 27-year low as interest rates pull back 모기지 수요, 27년 만에 최저치

- 모기지은행협회(MBA)에 따르면 지난주 총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 주 대비 2.9% 감소했다.
- 30년 고정금리 모기지의 평균 계약 이자율은 7.31%에서 7.21%로 하락했다. 주택 대출 채용자 신청은 전 주 대비 5%, 전년 대비 30% 하락했다.
-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청 건수가 199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MBA 이코노미스트인 Joel Kan이 말했다.
- 또한 이는 낮은 주택 재고와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인해 잠재적 구매자들이 주택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CNBC 기사

[부동산]

WSJ: Rising Rents Are Hitting American Suburbs Hardest 임대료 상승, 미국 교외 지역에 가장 큰 타격 줘

- 미국 교외 지역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는 대도시에서 교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현상이 장기화 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 2020년 팬데믹 초에 원격 근무 근로자들이 도시를 떠나 교외 지역으로 이동했다. 현재 높은 모기지 이자율과 주택 가격으로 교외 지역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임차인들이 교외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
- 이러한 추세는 임대료를 상승시키고 교외 지역의 임대 경제성에 대한 우려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일부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임대료 통제 조치를 통과 시켰다.
- 임대 웹사이트 Apartment List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교외 지역 임대료는 26% 상승했다. 이는 도심의 상승률보다 8%p 높은 수치. 교외 임대료 상승률은 33개 대도시 지역 중 28개 도시보다 더 높았다.
- 가장 큰 임대료 격차를 보인 곳은 Oregon주 Portland였다. Portland 교외 지역 임대료는 2020년 이후 23% 상승한 반면, 도시 임대료는 약 2% 상승했다.
- 한편 단독주택 임대료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계속 상승하고 있다. 데이터 회사 CoreLogic에 따르면 시카고, 보스턴, 올랜도 대도시 지역의 주택 임대료는 6월에 전년 대비 각각 5% 이상 상승했다.

WSJ 기사

[오일]**CNN Business: Oil prices surge after Saudi Arabia and Russia extend production cuts****사우디와 러시아 감산 연장, 유가↑**

-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와 러시아가 감산 기간을 최소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가가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는 1.8% 상승해 배럴당 90불을 넘어섰고, 미국 벤치마크인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도 비슷한 폭으로 상승해 배럴당 87불.
- 사우디 에너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하루 100만 배럴 감산은 12월 말까지 연장될 것이다. 그는 “감산 정도를 늘리거나 줄이는 것을 고려하기 위해 매달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CNN Business 기사

[항공 여행]**WSJ: The Cheap Flights of Fall Are Back****항공권 가을에 특가 할인**

- 여행 앱 Hopper에 따르면 가을 항공권 가격이 이전보다 저렴해졌다. 가을 항공권 가격이 전년 대비 9%, 2019년 대비 10% 하락한 것.

- 이는 저가 항공사가 주도하고 있다. 스피릿 항공과 프론티어 항공은 클리블랜드 → 올랜도, 디트로이트 → 애틀랜타로 가는 항공편을 약 20불부터 시작하는 저가 항공편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
- 젯블루는 뉴욕 →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LA →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편도 요금을 39불까지 낮췄다고 광고 했다.
- 유럽행 항공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Going에 따르면 뉴욕 JFK → 파리 왕복 이코노미 항공권은 230불이다. 이는 전년도 392불에서 낮아진 가격이다.
- 지난 몇 년 동안 원격 근무 덕분에 비성수기에도 여행 수요가 높아 특가 할인 항공권을 찾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현재 9~10월 국내선 노선 가격이 여름 성수기 평균보다 29% 낮은 상황이다.

WSJ 기사

CNBC: Airlines warn about spike in fuel costs, Southwest narrows revenue outlook

항공사들, 연료비 급등에 대해 경고

- 미국 주요 항공사들이 연료 가격 급등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AA에 따르면 시카고, 휴스턴, LA, 뉴욕의 제트 연료는 갤런당 평균 3.18불로 7월에 비해 30% 이상 상승했다.
- 한편 Southwest 항공은 이번 분기에 대한 수익 전망을 낮췄다. 이 항공사는 9월 30일까지 단위 매출이 전년 대비 5~7%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Southwest 항공에 따르면 이번 분기 연료는 갤런당 평균 2.70~2.80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 예상치인 2.55~2.65불보다 높아진 금액.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Labor Is a Terrible Guide to Inflation, but Nobody Wants to Admit It '인플레 예상 지표로 고용 수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말라'

- 중앙은행들이 인플레를 2% 미만으로 낮추는데 가장 큰 지표는 노동 시장이라는 것이다.
- 그런데 17개 선진국을 살펴보면 실제 인플레이션 하락은 인플레가 정점 직전이나 이후나 실업률 상승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구의 노동시장은 인플레가 잠잠했던 펜데믹 이전에서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2021년 만큼이나 타이트했다는 것이다.

- 유로존을 예로 들면 임금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미리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항상 뒤따랐다는 것이다. 즉 실업률과의 연관성이 훨씬 적다는 점이다.
- 그러나 비둘기파나 매파 모두 이와 같은 상관 관계가 적은 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Getting Promoted Often Leads to Jumping Ship, New Data Reveal 승진이 퇴사로 이어진다... 새로운 데이터 밝혀

- ADP 연구소는 29%의 사람들이 첫 승진 후에 한 달 안에 퇴사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팬데믹 기간의 업무를 분석했으며, 승진이 직원들을 회사에 머무르도록 하기보다는 직원들에게 퇴사 욕구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 ADP의 수석 경제학자인 Nela Richardson은 때때로 기업들이 승진한 직원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 도움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기도 하며, 승진은 또한 직원들이 다른 기업에 더 나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다고 말한다.
- 다른 이유로는 승진이 너무 늦게 진행되어 직원들이 아마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

WSJ 기사

CNBC: Women will accept \$66,000 a year to take a new job — while men hold out for more than \$90,000

여성들, 새직장 희망 연봉 6만6천불, 남성은 9만1천불

- 대부분의 근로자가 받길 원하는 금액이 올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
- 여성의 경우, 새로운 직업을 위해 그들이 받고 싶은 가장 낮은 평균 연봉은 \$66,068이지만, 남성의 경우 받아들일 수 있는 최저 연봉은 9만1천48불이다.

CNBC 기사

WSJ: How Worried Should We Be About AI's Threat to Humanity? Even Tech Leaders Can't Agree

AI가 인류에 위협? 전문가들도 의견 분분

- 고성능 AI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고위 임원들은 AI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다른 과학자들은 어떻게 AI가 당장 적용되고 있고 우리

의 일상의 삶에 어떻게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한다.

- AI 개발회사인 Anthropic의 리더인 Dario Amodei는 이번 여름에 의회에서 AI가 인류에게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CHAT GPT의 개발기업인 OpenAI의 대표 Sam Altman은 AI가 언젠가 심각한 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일론 머스크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AI가 인류를 멸종시킬 가능성이 전무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 반면에 다른 AI 과학자들은 이러한 경고를 공상과학 소설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AI 기업들과 규제기관들이 그들의 제한된 자원들을 AI 기술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위협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 이러한 논쟁은 전 세계 기업들과 정부가 잠재적으로 세계를 변화시킬 기술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면서 커지고 있다.

WSJ 기사

WSJ: Tyson Foods Couldn't Produce Enough Chicken. Now It Has Too Much.

Tyson사 이제는 오히려 닭고기 생산 과다

- Tyson 식품사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공장들과 직원들이 너겟과 닭 가슴살 그리고 닭 날개 생산을 늘리는데 열성이었지만 이제는 과다하게 생산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일부의 지적을 받아들여 3월에 자사의 The Van Burne 공장을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이것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계획 중의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 Tyson의 사업은 최근에 도매가 가격의 하락과 정체된 수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 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지나친 생산량 증가가 기업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말했다.

WSJ 기사

[보고서]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미국 은행, 경기 둔화 우려 속 현금 4천300조원 쌓아둬"

작년 말보다 5.4% 증가...당국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대비

미국의 은행 등 대출 기관들이 경기 둔화 우려와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 약 4천30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현금을 쌓아둔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은행의 전체 현금 자산은 지난달 23일 기준 3조2천600억달러(약 4천350조원)로 작년 말보다 5.4% 증가했다.

이 같은 현금 자산은 지난 3월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후 3조4천900억 달러(약 4천650조원)까지 불어났다가 이후 감소했지만 팬데믹 이전보다는 여전히 거의 두 배가량 높은 상황이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